

### 마음의 빗장을 풀다

진정으로 자신이 행복을 원한다면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온갖 번뇌를 버려야 한다.

〈차 한 잔의 선물〉은 항상 바쁘고 지쳐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해 주는 책이다. 책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득 안고 있는 고요한 아침 산사를 거니는 듯한 여유를 안겨준다.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이 향기를 전하고, 숨이 탁까지 차올랐을 때, 잠시 쉬어가라고 자리를 내어준다. 서늘 피런 젊은 날의 고뇌들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며, 스스로에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에 대한 화두를 부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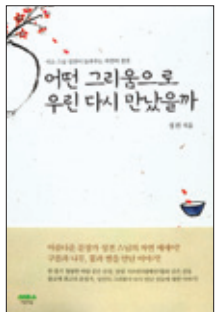
차 한 잔의 선물 | 자영 지음 | 미네르바 펴냄 | 1만800원 이은정 기자

### 마음을 치유해 주는 자연의 경전

라디오 스타, 불교계의 글쟁이, 아름다운 문장가, 미소스님... 이 모든 수식어는 바로 용문사 주지인 성전 스님에게 따라 붙는 말들이다. 성전 스님은 최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자연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났을까〉는 스님만이 만들어낼 수 청량한 자연의 경전이다. 강, 구름, 바람, 햇빛, 별, 꽃, 산에게 저자 스스로가 끊임없이 물을 던지고 고뇌하고 반성하며 얻는 답들이다. 책을 어렵지도 길지도 않은 글들로 구성됐으며, 지시문이나 강한 메시가 담겨 있지 않다.

스님은 법정 스님을 잇는 불교계의 문장가로 알려져 있다. 특유의 아름다운 문장과 자연과 삶에 대한 찬미는 현대인들이 꼭 한번 읽어야 할 경전이다. 나무와 꽃과 구름, 바람과 햇빛, 밤하늘의 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마치 칼질 지브란의 〈예언자〉와 같은 장엄과 같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이야기들이 명쾌하면서도 간단하게 서술돼 있다.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났을까 | 성전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4800원 이은정 기자

## 우리가 '쥐 신세'를 면하려면

### 어른들을 위한 동화 '마하무스 이야기'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양 이 꼴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책바퀴 돌 듯 똑같이 되풀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쥐들은 늘 뭔가를 쫓는다. 이 쫓는 일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현실이자 멈추어서도 안 되는 숙명이다.

생쥐 마하무스는 이 일을 지긋지긋해 하며 거부한다. 마하무스는 쫓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기 일쑤다. 쥐 주제에 자기 분수도 모르고 늘 탄생각만 하는 이런 마하무스를 다른 쥐들은 '별난 쥐, 게으른 쥐, 못난 쥐'로 치부한다. 마하무스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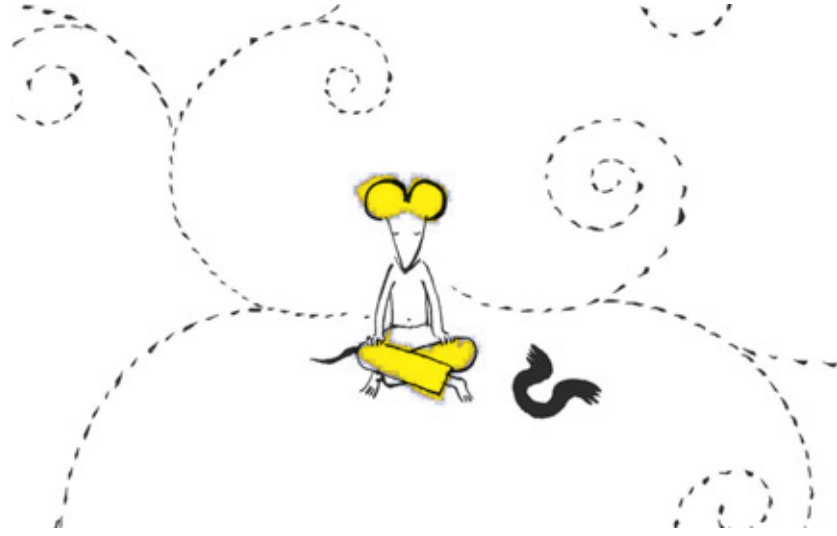
마하무스는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기에 급급한 쥐들과 달리 앞날을 위해 식량을 비축할 생각을 해낸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창고를 마련한다. 하지만 큰비가 와서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와 더불어 자기 형제 쥐나 다른 쥐들이 땀이나 송골같은 포식자들에게 속절없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을 끊임없이 목격한다.

마하무스는 의문에 휩싸인다. '왜 자신의 노력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물거품이 돼야만 했을까? 왜 쥐들은 이토록 힘없는 존재로 태어나 허무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가?' 자신의 현실과 존재에 대한 의문이 깊어질수록 마

하무스는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일이 더욱더 잦아진다. 그러던 중 마하무스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 소리가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다른 쥐들에게 물어보지만, 오히려 비난과 따돌림을 받고 심지어 미치광이 취급까지 당한다.

그렇게 외톨이가 돼버린 마하무스에 게 어느 날 운명처럼 스승 '두루뵤은 빛'이 나타난다. 그는 마하무스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맞히고,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마하무스는 지금까지 한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길, 자신이 궁금해 했던 삶과 존재의 모든 비밀이 낱알이 밝혀지는 여정에 오르게 된다.

〈마하무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쥐들의 세상은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영위할 뿐인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쥐들은, 굳어버린 습관과 눈앞의 현실에 얽매인 채 늘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초라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쥐 주제에'라거나 '자기 분수를 알고'라며 '쫓는 일'에만 매달리는 쥐들처럼, 우리 또한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그럴



인간세상의 축소판을 말하는 〈마하무스 이야기〉

기에 만일 마하무스처럼 '나는 왜 쥐로 태어났는가, 나는 어째서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마하무스 이야기〉는 이처럼 자신의 현실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한계를 벗어나고자 꿈꾸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것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일깨운다. 마하무스는 다른 쥐들의 비난과 우려에도 굴하지 않고 주어진 틀에서 벗어나 '딴 생각'을 한다.

마하무스는 새롭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짐으로써 쥐라는 껍데기를 깨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향해 나아간다. 지혜

로운 멘토 '두루뵤은 빛'은 마하무스로 하여금 자신이 "그저 한 마리 불품없는 쥐"가 아니라, 쥐로 살기로 선택한 영혼이 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도록 이끈다.

이 책은 자신의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이며, 따라서 자신이 그리고 꿈꾸는 세상의 창조주도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일깨운다. 그리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모든 틀과 장애를 깨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돼 현실을 변화시키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용기와 힘, 지혜와 길을 제시한다.

마하무스 이야기 | 유영일 지음 | 김우선 그림 | 아름드리미디어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 어디까지 채워야 행복해지겠습니까?

### 소유에 목마른 현대인들을 위한 냉수 한 잔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무소유'는 점차 우리시대의 화두가 됐다. 물질만능시대에서 '무소유' 사상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무소유'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대인들은 이 '무소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6주 동안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우리시대 무소유를 묻는다'를 주제로 즉문즉설 형식의 대중강연이 열렸다. 강연에는 환경운동가 지음 스님, 공동체 운동가 박기호 신부, 진보운동가 이남국,

시골교회의 임락경 목사, 요가수행단체 '아나다마르가'의 찻다, 민들레 국수집 사장 서영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대표인물로, 강연을 통해 우리시대의 무소유 길을 묻고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한다. 이들 모두는 무소유에 대해 공통적으로 " '무소유'란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무소유는 물질과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는가에 따라 그 규정이 달라진다. 단순·소박함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물질



적 소유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고, 물질을 통한 마음의 소통에 의미를 두는 사람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예로 억만장자이지만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의 사회적 소통을 실천하는 사람도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 강연자들 역시 각자의 삶의 궤적에서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 '진리를 추구하는 집요한 의지' 등이 무소유임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6명의 강연자들은 나를 비울 때 비로소 내가 사는 세상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영원한 행복, 지복으로 가는 길임을 각자의 삶을 통해 들려준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는 로또복권을 끊는 사람부터 개발에 목숨 건 정치인까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결국 '무소유'가 개인적인 안락나도의 가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임을 말해준다.

소유에 목마른 현대인들을 위해 냉수 한 잔을 건네는 듯 한 여섯 현자의 메시지는 〈비워야 산다〉라는 책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다. 본래 강연은 '생명평화결사'가 매년 실시하는 기획 강연으로 우리 사회의 정신적 사표가 되는 선지식을 모아 시대의 화두를 생각해 보는 자리다. 비워야 산다 | 지음·박기호·이남국·임락경·찻다·서영남 지음 | 휴 펴냄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 이야기가 담긴 현판

사찰에 가면, 남루해 보이는듯 한 사찰의 현판(懸板)을 쉽게 볼 수 있다. 불품없고 판자 조각리에 불과해 보이는 현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재 '불교신문'의 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의 사찰 현판3〉의 저자 신대현 씨는 "사찰의 현판은 다양하고 많은 기록물을 남기고 있으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가 많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현판은 그 절의 지나온 역사의 일단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강조한다. 현판은 종수나 점건을 기념해 그 일이 일어난 배경과 과정, 그리고 불사가 완결된 상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차 사료가 된다. 사찰을 연구하다 보면 구전 외에는 참고할 만한 문헌자료가 없는 현실에서 현판은 귀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저자는 "현판에는 불교사 연구에 필요한 역사가 담겨 있어, 금석문과 문헌을 아우르는 중요 사료로 재인식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당시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찰이라는 공동체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져, 일반 사람들이 읽어도 재미가 넘는다. "현판에는 '스토리텔링'이 유행하고 있는데, 현판에도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극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이미 1.2권을 통해 스토리가 담긴 현판들의 이야기를 말해왔다. 3권에서는 앞서 두 권에서 밝혔던 현판의 의미에 더해 보다 더 다양한 현판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사찰의 현판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의 사찰 현판3 | 신대현 지음 | 혜안 펴냄 | 1만3000원 이은정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3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출
4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5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인경	명상성립연구원
6	명쾌한 깨달음	백창우	운주사
7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8	마음의 비밀 1	성운	토방
9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났을까	성전	마음의 숲
10	론사이스판 불교사전	김승동	민족사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수불 스님과 함께 한 중국 강호江湖 12 선찰禪刹 순례기

## 행복하는 禪 여행

글·정찬주



\*신국판 변형, 304쪽, 윗판, 15,000원  
사진가 윤명숙의 생생한 사진으로 공안의 역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禪의 황금기

불교적 사유로 웅숭깊은 글을 써온 소설가 정찬주가 선의 황금시대를 연 중국 강호(장시 성과 후난 성)의 대표적 선사들이 주석했던 열두 사찰을 순례했다. 안국선원 수불 선전장 스님과 그 계가 불자들이 함께한 순례에서 순례일행은 천 년의 시공을 넘어 선사들과 조우하며 행복한 구도의 향연을 펼친다. 저자는 아인슈타인이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 모두의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인 불교야말로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라

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수불 스님의 말씀대로 선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옛선사들의 발자취를 접할 수 있는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선의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 일주일만 앓을 수 있으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 책은 4세기에 걸친 선의 황금시대 진면목을 저자의 빼어난 안목과 수불 스님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보여주며, 순례 일행의 선 체험 이야기와 함께 일주일만 앓을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전광석화 같은 수불 스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수불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저자 정찬주. 수불 스님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조사와 공안의 역사 현장에서 수시로 법석을 펼치며 순례일행의 눈을 열어주었다.

### 뜰 앞의 잣나무

글·정찬주  
초조 달마에서 육조 혜능, 조주, 임제, 운문선사의 벼락같은 깨우침  
중국 10대 선사의 삶과 자취를 따라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광둥廣東까지  
광활한 중국 대륙 2,000Km를 세 차례 종단한 소설가 정찬주의 혼이 담긴 禪순례 이야기.  
현장에서 취재한 새롭고 친절한 禪입문서

